

**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오페라분야)
우수작품제작지원사업 심사진행경과 및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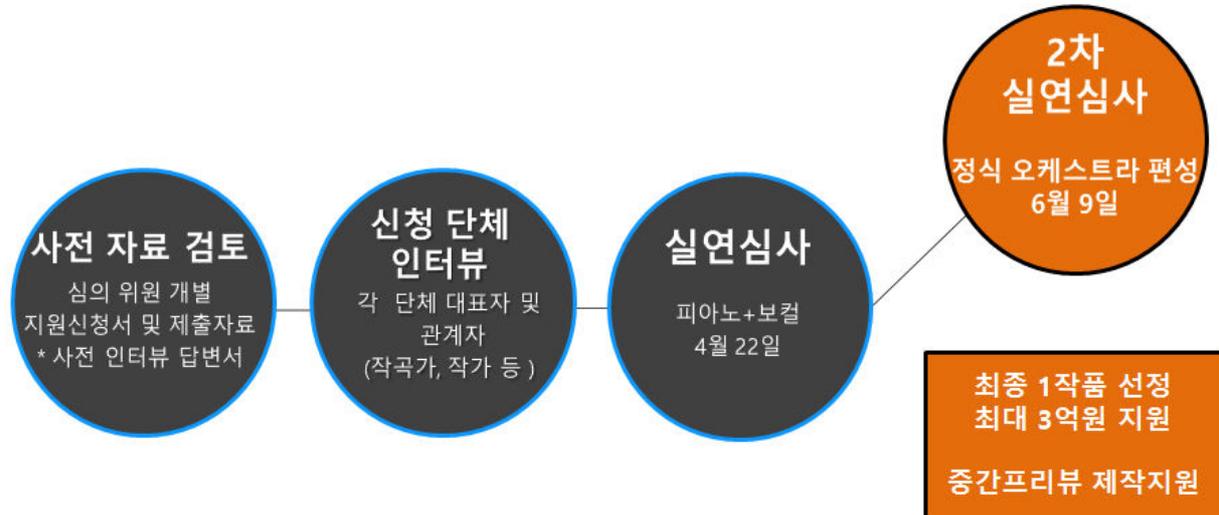
- 일 시 : 2015. 6. 9(화) 13:30 ~ 19:00
- 장 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심의위원 : 김경희, 김종국, 이만방, 이종진, 정은숙, 정치용, 정태봉 (총 7명)

“지원대상 없음” 이것이 장장 5개월간 진행된 2015년 우수작품제작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이다. 당장 위 결론이 우리 오페라 현장에 미칠 심대한 영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7인의 심의위원들이 장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 판단에 앞서 밝히고 싶은 것은, 이번 2차(최종) 실연심사에 참가한 5단체와 작곡가들의 열정적인 준비과정과 깊은 고민에 대한 감사이다. 이번 심사결과에 인해 이와 같은 소중한 과정이 모두 무시되고 무의미한 시도로 치부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제작비 부담부터, 캐스팅과 연습, 홍보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도전의 연속임을 잘 알면서도 기꺼이 이번 공모를 통해 창작오페라 작품발굴에 전력을 다한 오페라단과 수차례의 개작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밤낮을 고민하고 누구보다 발표의 순간을 긴장하며 지켜 봤을 작곡가 모두 ‘실패한 탈락자’가 아닌 ‘위대한 도전자’임을 알기 때문이다.

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오페라부문은 지난 1월 시범공연지원대상 접수를 시작으로 단계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진행단계는 다음과 같이 서면심사 및 신청단체 관계자 인터뷰를 거쳐 1차(예비) 실연심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후 1개월씩의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단체에게 주어지고 각 단계별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논의를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 창작산실 오페라 부문 우수작품제작지원 사업 프로세스 >



이번 심의는 2차례(예비, 최종)에 걸쳐 진행될 우수작품제작지원 지원대상 1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예비심사에서 밝혔듯, 전년도 사업운영 후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범공연 심의방법을 4월(피아노+보컬 진행상태 점검 / 비공개), 6월(오페라콘체르탄테 형식 최종심의 / 일반 공개)로 구분했다.

이번 시범공연에 참가하는 5개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져 비록 이번 우수작품제작지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사장되지 않고, 추후 전막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예술위원회에서는 5팀의 작품을 연주하는 약 40명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섭외하여 연습실에서 2회의 리허설과 실연심사장소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최종 리허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HD급 카메라를 동원하여 두 차례의 실연 영상을 촬영한 자료를 단체별로 전달하였고, 단순 기록용이 아닌 추후 활용도를 고려한 부가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 4월 1차 예비 심의에 대한 심사평에서도 밝혔듯, 올해 심의 중점방향은 단순히 공모에 신청한 작품에 대한 심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창작오페라 제작 환경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향후 이 사업의 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의견을 모으는 것이었다.

결국 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기까지, 그동안 우리 창작오페라의 '발전' 이전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바꿔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대안찾기에 골몰할 수 밖에 없었다. 언제까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만큼까지 해냈다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명감만을 강요해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결정과 동시에 심사위원단 전원은 본 사업의 주관처인 예술위원회 측에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사업구조의 개선과 보다 근본적인 창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신규 사업의 도입이 필요함을 전달했다. 당장 심사를 통해 특정 작품을 선정해서 얼마를 지원해오던 기존의 공모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우리 오페라계의 활력을 되살려 줄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오페라계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우리의 현실을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서 다시 힘을 모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오페라분야) 심사위원 일동